

국시의 새로운 전환과 도약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지난 98년 6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발족한 이래 99년 처음으로 보건 관련 국가시험을 치르게 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보건관련단체 국가시험을 정부주도에서 민간기관으로 이양함으로써 발족한 것으로써 전문적 인력 확충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관리가 기대된다. 이에 국시원의 발족 배경과 조직 및 99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살펴본다. <편집자>

취재/안정미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분야 국가시험 전담기구 역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97년 12월 보건복지부가 한국 의사국가시험원 및 17개 보건의료단체에 (가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설립지침을 통보함으로써 구체화되기 시작하여 지난 98년 2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건의료단체 대표 등 25명으로 설립추진협의회를 구성, 국시원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3차례의 회의를 거쳐 수행했다.

이어 98년 5월 4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설립 허가를 받았고 5월 8일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6월 3일에는 개원기념식 및 개원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보건의료단체의 국가시험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하게 됐다.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시행됐던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전담관리 인력의 부족 및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지속성이 결여되고 문제출제위원 구성, 출제방법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확실한 방침이 없었다. 또한 출제문제에 대한 난이도, 변별력 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문제평가와 타당성 검증이 부족한 상태로 매년 국가시험이 치러졌으며 이는 다른 보건의료단체도 마찬가지의 상태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의 질적향상 도모와 국가시험관리의 전문화, 국가시험제도의 연구기능수행, 치과의료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설립이 필요하



국시원은 지난 9월 7일 신라호텔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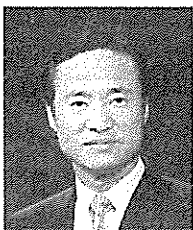
게 됐고 현재의 국시원에 이르게 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명시한 설립목적은 국가시험관리 및 시험제도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가시험관리의 전문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기능은 의사 및 치과의사 등 17직종 24종류에 대한 국가시험 시행업무를 관장하고 국가시험제도를 연구, 시험문항을 개발하며 응시자격자를 평가하고 사정한다. 또한 외국수학인력에 대한 응시자격을 검사하고 평가하며 관리하고, 국가시험 정책, 기획, 평가하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면허관리를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인력수급 및 양성제도에 대한 연구도 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관리하는 직종을 살펴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국시원에 한마디



실무적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를 만들고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치름으로써 진정 국가가 원하는 양질의 의료인을 배출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이기택/대한치과의사협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국가시험원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국시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길

유성희/대한의사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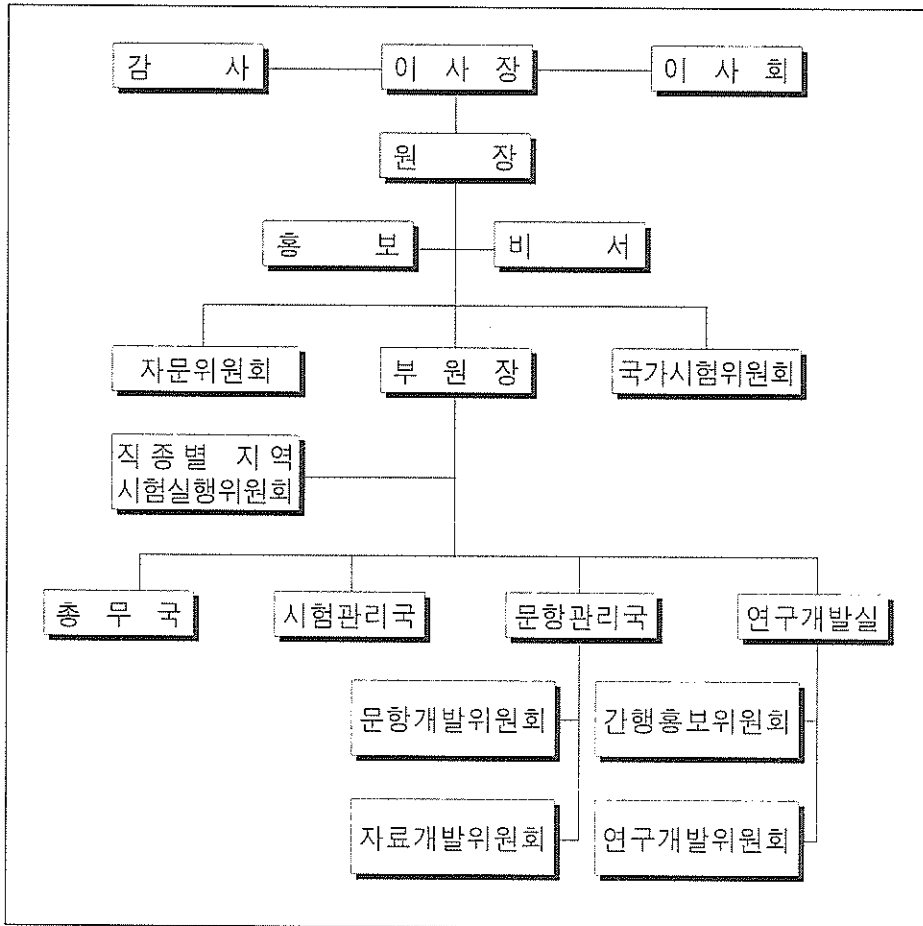


그림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조직표

의 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시험관리를 비롯해 문항관리, 제도발전, 기타 시험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시원의 조직 편성은 <그림 1>과 같다.

국시원에 기대되는 가장 큰 역할은 각 시험문항의 질을 개선하여 국가시험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치협에서는 이를 위해 치과의사국가시험원을 실시코자 노력하였으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보건의료관련 국가시험을 통합하게 된바,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통합된 국시원에서 다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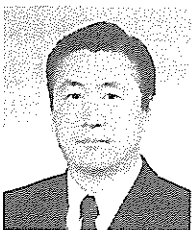
국시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계 인사를 살펴보면 치과 의사시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치협 부회장이인 정성창 서울치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등 17개 직종이다.

국시원 산하 보건의료인국가시험위원회는 17개 직종

있으며 김관식 치협 학술이사가 간사로, 전북치대 백병주 교수, 서울치대 임성삼 교수, 서울치대 남동석 교수, 경희치대 이상래 교수, 연세치대 이충국 교수, 강릉치대 한송 교수, 단국치대 조인호 교수가 위원장으로

국시원에 한마디



최환영/대한한 의사협회장

실험실습 등 변별력과 타당성 있는 시험문제를 개발, 한차원 높은 국가시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야



김화중/대한간호사협회장

국시원은 관리적 측면만 중시하는 획일적 제도 운영보다는 보건의료 인력마다 전문성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가운데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운영의 묘 필요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기택 협회장은 국시원의 이사를 역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외 국시원의 임원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99년 사업계획 -
선행시험, 예비시험,
문항개발기준, 실기시험,
문항개발능력 등 연구**



국시원은 지난 98년 6월9일 개원기념식과 개원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시원의 최종 목표는 국가시험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험문항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험제도를 선진화하며 시험절차에 효율성을 기한다는 중간목표를 설정했다. 99년에는 제1과제에서부터 제5과제에 이르기까지 연구 과제를 설정해두고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그 다섯가지 과제는 선행시험, 예비시험, 문항개발기준, 실기시험, 문항개발능력에 대한 내용이다.

선행시험 연구

선행시험에 대한 연구는 시험문항의 난이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시험의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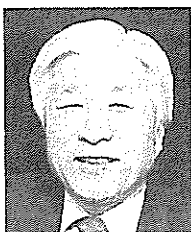
난이도가 이미 검증된 자료를 실제 의사시험에 활용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난이도를 예상할 수 있게 되고

합격자의 수준도 최저기준에 맞추어 해마다 안정적으

이사장	유성희(대한의사협회장)
원장	이문호(전 한국국가시험원장)
이사	오대규(복지부 보건자원관리국장), 이기택(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환영(대한한의사협회장), 김화중(대한간호협회장), 김희중(대한약사회장), 노숙령(대한영양사회장), 김호곤(대한안경사협회장), 김건중(대한방사선사협회장), 최삼섭(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상임위원), 박수성, 이유훈
감사	염순규(대한의무기록협회장), 김숙향(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사무총장	박기준(전 국립보건원 기획자원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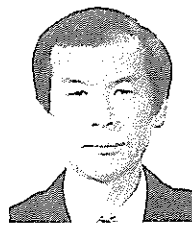
표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임원 명단

국시원에 한마디



김희중/대한약사회장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능력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춘 전문인을 배출할 수 있는, 도덕과 권위가 결합된 공신력 있는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김건중/대한방사선협회장

보건의료 단체의 크고 작음을 떠나 모든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국가 면허시험으로서의 공신력과 권위의 확립에 보다 많은 노력 기울여야

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연구과제의 산물인 '난이도가 알려진 문항'은 문항 개발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항의 시험효과가 긍정적으로 판단되면 의사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시험에도 적용가능하게 될 것이다.

각 보건단체의 국가시험은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라 합격률이 좌우된다. 시험문항의 질적향상과 함께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갑작스런 난이도의 변화는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게 됨으로 문항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측가능한 난이도로 수험생의 능력을 가릴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문항의 난이도는 상대적이어서 시험을 시행하기 전 알 수 있는 것은 추정난이도뿐이며 추정난이도도 문항 작성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시험 연구는 이러한 추정난이도에서 오는 오류를 해소하여 예측가능한 난이도의 문항을 사전에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선행시험에 대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국가시험에 실제로 적용시킬 적정 수의 문항을 개발하고, 시험을 시행한 뒤 문항의 내용을 분석하여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여 장차 필요한 때에 그 문항을 검색하여 실제 문항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대기시키는 세 단계의 절차로 나뉘어진다.

예비시험제도 연구

국시원의 제2과제는 외국대학 졸업생에 대한 예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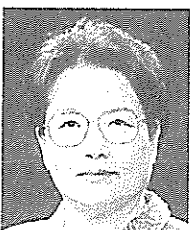
국시원 이문호 원장은 지난 98년 9월24일 국립보건원 조병윤 원장과 국시업무 인수인계서에 서명하고 악수를 나누었다.

험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다.

예비시험제도의 연구목표는 외국에서 수학중인 의학, 치의학, 한의학 분야의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귀국 후 해당분야 분시험을 보기에 앞서 예비적으로 자격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측정도구의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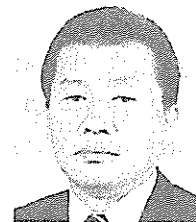
현재 외국에는 많은 한국 학생이 의학관계 공부를

국시원에 한마디



노숙령/대한영양사회장

단순히 시험문제만을 반복해 면허를 취득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전문분야끼리 심도있는 연구와 정보교환의 성숙한 장 마련돼야



김호곤/대한안경사협회장

공급위주의 국가시험에서 탈피하여 직업인의 자질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되기를 바라며 또한 국민 건강에 초점 모아지는 정책개발도 이루어졌으면

하고 있으며 그 수는 집계되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웃돌 것이라는 추측이 있고 또 이들이 의료업계 종사자의 인력수급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예비시험제도 도입은 과거에서부터 필요성이 대두된 연구과제이다.

지난 97년 1월에 실시된 제49회 치과의사국가시험에 서는 외국치대 출신 응시자가 200여명이나 대거 합격해, 그동안의 평균합격률 17%의 두배가 넘는 42.2%의 합격률을 나타낸 바 있어 해외유학생의 유입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비시험제도 도입은 그동안 치협에서도 계속 주장해오던 치과계 현안문제인 저질 해외유학생 유입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항개발기준 연구

문항개발기준에 대한 연구는 통합된 국시원에서 앞으로 시행할 국가시험에 필요한 각 분야별 시험문항개발기준을 마련하는데 있다.

문항개발기준에 따라 시험문항구성이 이루어짐으로 국시 시작단계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문항개발기준에 대한 연구는 의사시험을 제외하고 이런 문항개발기준이 없었으므로 의사시험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관련 국가시험이 대상이 된다.

문항개발기준을 갖고 있지 않는 단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용어가 낯설게 느껴짐으로, 각 보건의료단체에서 문항개발기준에 대해 연구하기에 앞서 문항개발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서 활용되는지, 그리고 내용은 무엇으로 해야 할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워크샵 등을 통해 각 보건의료단체에게 교육시킬 예정에 있다.

문항개발기준 연구는 각 직종별로 문항개발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곧 연구내용이 되며 연구를 위해 우선 연구팀을 구성하고 워크샵을 마친 뒤 각 분야별로 개별작업을 하게 된다.

문항개발기준은 현행 시험과목을 중심으로 작성하게 됨으로 일차적 참고대상은 시험과목이고 다음은 과목내용 중 어떤 항목을 설정하며, 항목마다 어떤 수준의 문항개발이 돼야 하는지 세부항목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각 분야별로 이루어진다.

문항개발기준은 국시원이 해당 시험에 관한 한 이러한 범위 안에서 시험문항을 개발하여 출제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응시하려는 학생이나 이들을 지도하는 교수 및 대학 당국자는 시험준비를 위하여 참고해야 할 가장 긴요한 문서가 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추진 경과

1997. 12. 22

보건복지부가 한국 의사국가시험원 및 17개 보건의료단체에 (가칭)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설립지침통보

1998. 2. 12

제1차 설립추진협의회 개최

보건의료단체 대표 등 2명으로 설립추진협의회 구성, 실무위원회를 7~9명으로 구성하기로 함

1998. 2. 24

제2차 설립추진협의회 개최

정관개정안 심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직제(안)심의

1998. 3. 31

제3차 설립추진협의회 개최

1998년 사업계획안 수립,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최초이사(13명) 및 감사(2명) 구성

1998. 3. 31

17개 보건의료단체로부터 26억원의 기금을 출연받음

1998. 5. 4

보건복지부로부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설립 허가

1998. 5. 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1차 이사회 개최

199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국시원 직제안 심의의 건, 국시원 자금 관리의 건, 국시원 개원기념식 및 학술세미나 개최의 건에 대해 논의

1998. 6. 3

개원기념식 및 개원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문항개발기준 연구의 장점은 문항의 중복 개발이나 결손 부분을 막을 수 있고, 개발자 개인의 관심이나 기호에 따라 수준과 범위를 임의로 정하던 과거의 개발 절차와는 판이하게 달라지므로, 비교적 안정된 계획성을 가지고 문항을 개발하여 축적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시험의 타당성 및 객관성을 높여 시험문항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작용하게 된다.

또한 이런 문항개발기준이 마련되면 대학의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보건의료인력의 실제업무와 다른 내용이 조절될 수도 있다.

실기시험 연구

실기시험에 대한 연구는 종합적인 연구가 아직 시행된 바 없다. 이 연구는 보건의료분야 국가시험에서의 실기 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연구로서 실기시험 도입의 타당성 및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실기시험 연구는 보건의료분야의 국가시험 중 실기수행능력 평가의 도입에 앞서 실기시험이 왜 필요한가, 시행방법은 있는가, 현실적 시행 가능성이 있는가 등을 분석, 조사함으로써 국시원이 실기시험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계획방안과 이에 따르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건의료 분야 직업인의 능력은 전문적인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 업무 상황에서는 많은 실기 수행 능력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시험에서는 이 실기 분야의 시험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분야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시원은 지식의 측정이라는 기본적인 평가대

상을 놓고 본격적으로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기시험이 언젠가는 도입된다는 것을 감안하고 이 시험이 왜 꼭 필요한지 그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정립하고 실제 실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는지 또한 그 방안을 가지고 시험에 적용했을 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모색해 보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문항개발능력 연구

문항개발능력 연구는 문항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중급과정의 워크샵을 의미하는데 기초과정을 이수한 문항개발 예상 교수에게서 한 단계 더 향상된 수준의 문항개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항은 시험의 직접적인 측정도구이므로 문항의 구성이 잘 돼야 타당성이 높아진다. 구성할 내용은 기준을 따라 하면 되지만 문항이라는 형태로 구성하는 데는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다. 그것을 흔히 문항작성 수기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객관식 선택형 문항'을 규칙에 맞추어 작성할 수 있으면 되지만 한단계 더 수준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유형의 문항이라도 지식수준에 따라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작성해야 하는데 이 접근 방법이 일부 보건의료 계통 교수에게는 생소할 수

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교수의 작성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국시원에서는 올 상반기에 2003년까지의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 국민건강을 책임질 자질있는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시험의 질적 향상과 제도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단계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시원은 99년 5개의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보건의료 분야 국가시험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